

올림픽 양궁 '심박수 중계'...공사도 시청자도 '두근두근'



TOKYO 2020

D-8

선수들의 심박수 실시간으로 화면에 띄워 흥미진진 2년 전 예극한 양궁협회 울초 측정시스템 도입 훈련 정적인 스포츠 새로운 시스템 실시로 관전 재미 선사

2020 도쿄 올림픽에서는 양궁 공사들의 '심박수'를 TV 중계화면에서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된다.

14일 대한양궁협회에 따르면 세계양궁연맹(WA)은 최근 각국 올림픽 대표 선수들에게 '심박수 중계방송 활용 동의서'를 보냈다.

올림픽 중계 영상을 만드는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산하 올림픽주관방송사(OBS)가 선수들의 심박수를 실시간으로 중계화면에 띄우기로 하면서, WA가 선수 개인 생체정보 활용에 대한 동의를 받고 있는 것이다.

OBS가 심박수를 중계 영상에 활용하려는 것은 중계를 더 재미있게 만들기 위해서다.

양궁은 매우 정적인 스포츠다. 가만히 서서 번갈아 가며 활만 쓰는 모습이 지루하게 느껴질 수 있다.

승부를 가르는 선수 내면의 심리 상태를 어떻게든 중계로 전달해 보려고 OBS는 심박수를 활용하기로 했다.

실수한 선수의 심박수가 얼마나 올라가는지 등이 시청자들에게 재미의 포인트가 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하지만 이런 '심박수 중계'가 과연 성공할지는 미

지수다.

양궁협회는 올 초부터 심박수 측정 시스템을 도입해 훈련에 활용해왔다.

양궁협회 관계자는 "올림픽 실전과 비슷하게 꾸민 모의 훈련 환경에서도 선수들의 심박수는 내내 큰 변화를 보이지 않았다"면서 "도쿄에서도 비슷할 것 같다"고 말했다.

한 발 실수한다고 해서 심박수 수치가 확 뛰는, 극적인 장면은 세계 최고 공사들이 실력을 겨루는 올림픽 무대에서 안 나올 가능성이 커 보인다.

한편, 양궁협회는 2019년 6월 네덜란드 스텔르 토엔보스 세계선수권대회에서 WA가 심박수 중계 기술을 테스트하자 향후 이 기술이 큰 대회에서 쓰일 수 있다고 보고 일찌감치 국내 훈련 환경에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했다.

세계선수권 직후 회장사인 현대자동차 이노베이션 부서와 함께 센서 착용 없이 영상 카메라로 심박수 측정을 하는 시스템 개발에 나섰다. 올 초에는 완성된 시스템을 대표팀 훈련에 도입했다.

이달 초에는 자체 평가전 TV 중계 화면 제작에도 심박수 측정 시스템이 사용됐다. 작은 변화 하나도 놓치지 않는 양궁협회의 '완벽주의' 덕에 태극공사들은 '심박수 측정'이라는 다소 생소한 환경에 가장 먼저 적응을 마쳤다. /연합뉴스



양궁 국가대표 오진혁(왼쪽부터), 김우진, 김재덕, 장민희, 강재영, 안산이 28일 충북 진천국가대표선수촌에서 열린 2020 도쿄올림픽 미디어데이에서 활시위를 당기고 있다. /연합뉴스

올림픽 금메달 포상금 경쟁도 후끈

싱가포르 8억4900만원·홍콩 7억4000만원...한국은 6300만원



2020 도쿄올림픽 개막을 9일 앞두고 각 나라의 메달 포상금 정책이 시선을 끈다.

코로나19 여파로 대회가 사실상 무관중으로 진행되겠지만, 국격을 드높인 선수들에게 주는 보너스는 예전과 다름없거나 더 올라가기도 했다.

금메달 포상금으로 상상을 초월하는 액수를 내

건 나라는 싱가포르와 인도네시아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의 최근 보도를 보면, 싱가포르는 이번 도쿄올림픽에서 금메달을 획득한 선수에게 100만 싱가포르달러(약 8억 4900만 원)를 포상금으로 준다.

인도네시아도 2019년 기준으로 이와 비슷한 금액을 올림픽 금메달 보너스로 정했다.

싱가포르는 역대 하계올림픽에서 금메달 1개, 은메달과 동메달 2개씩만 따낸 스포츠 약소국이다.

2016년 리우데자네이루 올림픽 수영 남자 100m 접영에서 조지프 스톨링이 조국에 첫 올림픽 금메달을 선사하고 8억원이 넘는 포상금을 가져갔다.

인도네시아는 역대 하계올림픽 통산 금메달 7

개, 은메달 13개, 금메달 12개를 뒀다. 자원 부족에 걸맞게 올림픽 메달 보너스는 제대로 쏜다.

중국의 영도이나 국제올림픽위원회(IOC)에 속한 국가올림픽위원회(NOC) 소속으로 올림픽에 출전하는 홍콩도 5년 전 리우 대회 때보다 50% 가까이 상승한 500만 홍콩달러(7억4000만원)를 금메달 상금으로 내걸었다.

개최국 일본은 금메달리스트에게 500만엔(5200만원)을, 미국은 3만7500달러(4300만원)를 준다.

대한민국 정부는 금메달리스트에게 6300만원을 주고 은메달과 동메달을 딴 선수에게도 각각 3500만원, 2500만원을 전달한다.

단체전 선수들은 개인전 선수들이 받는 금액의 75%를 받는다. 가령 야구대표팀이 금메달을 획

득하면 개인 금메달리스트가 받는 포상금 6300만원의 75%인 4725만원을 수령한다.

메달을 따지 못하더라도 각 종목에서 대한민국을 빛낸 선수들에게 300만원의 격려금도 준다.

체육회는 경제·사회 단체가 준 대한민국 선수단 격려금을 모아 이를 선수단 전원에게 격려금으로 따로 지급할 예정이다.

프로리그에서 뛰는 선수들은 아마추어 선수들보다도 더 많은 돈을 챙길 수 있다.

한국과 일본 야구대표팀 선수들은 프로리그를 주관하는 한국야구위원회(KBO), 일본야구기구(NPB)가 금메달 인센티브로 각각 10억원, 1억 5000만엔을 주기에 우승하면 명예도 얻고 정부 포상금을 합쳐 우리돈 1억원 이상의 가뭇돈을 챙긴다. /연합뉴스

신진서, 박정환 도전 마크 '최고기사' 타이틀 지켰다

'쏘팔 코사놀' 결정전 3승 2패

신진서(사진) 9단이 '도전자' 박정환 9단을 꺾고 '최고기사' 타이틀을 지켜냈다.

신진서는 지난 13일 경기도 K바둑 스튜디오에서 열린 제2기 쏘팔 코사놀 최고기사 결정전 도전 5경기 최종 5국에서 박정환에게 246수 끝에 백 불계승을 거뒀다.

이 승리로 신진서는 5경기에서 3승 2패로 최종 우승을 확정했다. 지난해 초대 우승을 거둔 데 이어 대회 2연패에 성공했다.

지난해 챔피언인 신진서는 본선 리그를 뚫고 올라온 박정환을 상대로 타이틀 방어에 나섰다.

치열한 접전이였다. 신진서는 1국에서 박정환에게 졌지만, 2·3국을 연속으로 이기며 전세를 뒤집었다. 4국을 박정환이 가져가며 승부는 다시 원점으로 돌아왔지만, 신진서가 최종국에서 승리하며 우승을 차지했다.

이날 대국 초반에는 인공지능 승률이 한때 80%를 상회할 정도로 박정환이 앞섰다. 하지만 신진서의 승부수(백118·124)에 박정환의 실수(흑125)가 나오며 차이가 좁혀졌다. 이후 중앙 흑돌을 수습하는 과정에서 박정환의 완성이 나왔고, 좌변 흑돌이 잡히면서 신진서가 역전승에 성공했다.

한국 바둑랭킹 1위 신진서와 랭킹 2위 박정환이 대회 결승에서 만나 우승 대결을 벌인 것은 이번이 7번째다.

이번 쏘팔코사놀 최고기사결정전 우승으로 두 기사의 결승 맞대결 전적은 신진서가 4승 3패로 앞서게 됐다. /연합뉴스



페더러

페더러 올림픽 불참...무릎 부상 이유

스위스 출신의 '테니스 황제' 로저 페더러가 13일(현지시간) 무릎 부상을 이유로 도쿄 올림픽에 불참한다고 밝혔다.

그는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잔디 코트 시즌 동안 불행하게도 나는 무릎에 문제가 생겼고, 도쿄 올림픽을 기권해야 한다는 점을 받아들였다"고 말했다.

이어 "스위스를 대표하는 것은 언제나 영광이었고 내 경력의 하이라이트였기 때문에 매우 실망스럽다"며 아쉬워했다.

그러면서 "이번 여름 후반 투어 복귀에 대한 희망으로 이미 재활을 시작했다"면서 "스위스 팀 전체에 행운이 가득하기를 바라며 멀리서 열심히 응

원하겠다"고 덧붙였다.

1981년생으로 다음 달 40세가 되는 페더러는 지난해 두 차례 무릎 수술을 받았으며 1년 넘게 재활 치료를 받았다.

그는 2008년 베이징 올림픽에서 남자 복식 금메달을, 4년 뒤 런던 올림픽 단식에서 은메달을 목에 걸었지만 아직 단식 금메달은 획득하지 못했다.

2016년 리우데자네이루 올림픽 때도 왼쪽 무릎 부상으로 불참했던 페더러는 이로써 2회 연속 올림픽 무대에 서지 못하게 됐다.

그의 나이로 미루어 2024년 프랑스 파리 올림픽 출전은 사실상 불가능할 것으로 보여 앞으로 페더러가 올림픽에서 선수로 출전하는 모습은 더 보기

어려울 전망이다.

페더러는 8월 말 미국 뉴욕에서 개막하는 올해 마지막 메이저 대회 US오픈 출전을 준비할 예정이다.

올해 도쿄올림픽 테니스에는 남자부에 페더러, 라파엘 나달(3위·스페인), 도미니크 팀(6위·오스트리아), 스탠 바브링카(30위·스위스), 닉 키리오스(58위·호주) 등이 불참한다.

또 노바크 조코비치(1위·세르비아)는 11일 월드컵 우승을 차지한 뒤 인터뷰에서 도쿄에 갈 가능성에 대해 "반반"이라고 답해 출전 여부가 미정이다.

여자부에도 소피아 케닌(4위) 세리나 윌리엄스(16위·미국), 비앙카 안드레스쿠(5위·캐나다), 시모나 할레프(9위·루마니아) 등 톱 랭커들이 대거 불참한다. /연합뉴스

LOTTE CINEMA | 총장로관

단체 및 대관문의 1544-8855

- 1관 블랙 위도우
- 2관 블랙 위도우
- 3관 블랙 위도우, 이스케이프 룸 2: 노 웨이 아웃 스페이스 캠프: 새로운 시대
- 4관 랑종
- 5관 블랙 위도우
- 6관 랑종
- 9관 블랙 위도우, 이스케이프 룸 2: 노 웨이 아웃 콰이어트 플레이스 2
- 7관 씨네커플 크루엘라, 콰이어트 플레이스 2, 오필리아, 컨저링3: 악마가 시켰다
- 8관 씨네커플 꽃다발 같은 사랑을 했다, 발신제한 컨저링3: 악마가 시켰다

광주문화예술회관 문의 062)613-8353



GAC 11시 음악산책 4 차진업의 지구 모자이크화 일시: 2021. 07. 28.(수) 11:00 장소: 광주문화예술회관 소극장 문의: 062-613-8232



GAC기획공연 포시즌 박수를 보내다: 독주회 II 원재연 피아노 리사이틀 일시: 2021. 08. 21.(토) 19:30 장소: 광주문화예술회관 소극장 문의: 062-613-8235



즐거움 문화산책